

# 화학사업 M&A · 투자기법 다양화!

## 벌처펀드에 PIPEs 거래 활성화 ... 핵심사업 강화 전략적 인수 적극

최근 화학 M&A 시장에는 일반적인 루트 외에도 벌처펀드(Vulture Fund) 및 PIPEs(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ies) 등 새로운 접근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주로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금융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다.

MatlinPatterson Global Opportunists Partners는 Vantico의 부실채권을 달러당 13센트에 매입함으로써 2003년 7월 에폭시 수지(Epoxy Resin) 생산기업인 Vantico를 인수했다. MatlinPatterson은 부실채권을 Vantico의 지분과 맞교환하고 Vantico와 이미 지분의 49%를 소유하고 있는 Hunstman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PIPEs 거래 사례로 Warburg Pincus Private Equity는 2003년 6월 상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매입 및 현금 1억2600만달러를 조건으로 Wellman의 지분 26%를 인수했으며 앞으로 5년 안에 4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Wellman은 일반적인 M&A 루트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분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Wellman은 2001년 이후 미국 법무성(DOJ)의 Polyester Staple Fiber 산업육성에 따라 열악한 시장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자금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002년 3월 Berkshire Partners, Greenbriar Equity Group 및 Goldman Sachs로 구성된 투자그룹은 상환우선주 총 1억2500만달러에 Hexcel을 인수했다. Hexcel은 8억5000만달러 규모의 항공우주, 전자 등 고급 컴포ジット 소재사업으로 부채절감을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

Goldman Sachs는 이미 2000년 Ciba Specialty Chemicals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Hexcel의 주주가 됐으며 현재 Goldman Sachs가 Hexcel 지분의 37.8%를, Berkshire 및 Greenbriar가 35.2%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기업에 넘겼다.

최근 민간투자기업들의 PIPEs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경영효율성 면에서는 아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사업여건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화학기업들은 핵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전히 추가(Bolt-On) 인수를 택하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기업들은 M&A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투자기업들이 아직 대규모 인수를 감행하기에는 화학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몇몇 화학기업들이 핵심사업 관련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M&A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일부 화학기업들이 중소규모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Air Products & Chemicals(APC)은 최근 Ashland의 전자소재 사업을 3억달러에 인수했으며, BASF 및 Honeywell은 나일론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의 스왑거래를 완료했다.

J.P. Morgan에 따르면, 전략적 화학기업들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또한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위험요소를 기업 내부로 끌어들이며 비핵심 사업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학기업들도 금융기업과 마찬가지로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화학 M&A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Chemical Journal 2004/01/12>